

# 정례브리핑

2022.1.24.(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신년을 맞아 이번 주 화요일, 1월 25일 오후 3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상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31개 국가의 주한대사와 대사 대리,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세계식량계획 등 8개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석하며,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2022년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계 각국과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지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통일부는 설을 맞이하여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주민 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일정은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고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2018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여전히 점검하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파악한 관련 동향이 있는지요. 또한, 관련 주장에 대해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시설 동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데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을 포함한 유관국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올해 정주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주목하고 있는 주요 행사 일정이 있는지요. 이와 관련해 군사 활동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 북한은 올해 2월에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년, 4월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 110년과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년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주요 정치 일정의 경우 5년 또는 10년의 주기로 규모 있게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경축 문제를 결정하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각 부문별 준비를 독려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주요 기념일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유관 부서 그리고 유관국들과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군사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여 말씀드리기 보다는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 정세 관리를 위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요.

**<답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과거의 상

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 부처 그리고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